

創 刊 辭

延世의 創學이 벌써 백십 년째로 접어 들고, 우리 나라에 近代經濟學의 도입이 90여 년에 이르며, 延世에서 經濟學 講義가 시작된 지도 80년에 다다른 오늘에야 뒤늦게 「연세경제연구」가 창간되는 데에는 우리 後學들의 나태와 무기력함이 커다란 이유 가운데에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우리들의 恩師님들의 꾸짖음과 젊은 同學들의 재촉에 힘입어 이제 첫발을 내디디게 됨에는 적잖은 설렘과 기쁨이 따르고 있다. 특히, 금년은 우리의 은사님들의 스승이셨던 東岩 白南雲 教授의 誕辰 百週年이기도 하여 「연세경제연구」의 창간에는 또 다른 意義가 주어지기도 한다.

1958년 창설된 延世大學校의 產業經濟研究所는 經濟學, 商學, 經營學, 統計學 등의 종합 학술 專門誌로서 「產業과 經營」을 1963년 創刊한 이후 1992년까지 續刊하여 오다가, 우리 商經大學의 各級 專任敎員의 規模가 60여 명에 肉薄하면서 擴大, 分立하게 되어, 오늘 「연세경제연구」가 創刊되기에 이르렀다. 經濟學 및 統計學 專門의 이 學術誌는 이제 외롭고 작은 새 생명의 울음을 터뜨리기는 하였지만, 江湖 同學들의 보살핌과 참여로 우리 경제학과 통계학의 中興을 내어다 보면서 크게 자라게 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994년 가을

편집인 尹錫範 적음